

## 국제 성평등 지수 관리 방안

수행과제명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평등 지수 관리 방안

과제책임자 : 전기택 연구위원

Tel: 02-3156-7178, e-mail: junkt@kwidimail.re.kr

### 요 약

세계화 및 국제 경쟁의 심화에 따라 국가 성평등 수준 개선이 국가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러나 국제기구의 성평등 지수에 반영된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아 향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이명박 정부는 성숙한 세계국가를 국정지표로 설정하고, 선진국 수준의 양성평등 실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연합개발계획 등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국제 성평등 지수에 반영된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세계화와 국제 경쟁 심화에 따라 국제사회는 양성평등 수준 개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주목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양성평등 수준 개선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성평등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 국제 성평등 지수 개선 등을 위해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국제 성평등 지수와 국가 성평등 정책을 연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2. 정책의 추진방향

-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국제 성평등 지수는 한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로 간주되고 있음. 국가 성평등정책과 연계한 국제 성평등 지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함
- 첫째, 여성정책기본계획과 국제 성평등 지수 하위 지표를 연계하고 그것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국제 성평등지수 개선을 위해서는 남녀권한척도(UNDP), 성격차지수(WEF) 등을 구성하는 하위 지표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이를 위한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세부정책목표와 국제 성평등지수의 하위지표를 연계하고 그것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현재 여성부가 개발하고 있는 국가 성평등지수의 하위지표에 국제 성평등지수의 하위지표를 포함하고, 덴마크 사례와 같이 해당 지표의 담당 부처를 지정, 관리토록 해야 할 것임
- 둘째, 국제 성평등 지수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목표를 설정함. 우리나라의 국제 성평등 지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국제 성평등 지수의 예상 순위 등 모의실험 결과 등을 참고하여 국제 성평등 지수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지수의 하위 지표별 목표를 연차별로 설정, 추진해야 할 것임. 그리고 국제 성평등 지수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제 성평등 지수를 관련 부처의 성평등 정책 관련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성 인지 예산제도 등과 연계·운영해야 할 것임
- 셋째, 국제 성평등 지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추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위에서 제안한 여성정책기본계획과 남녀권한척도 하위 지표의 연계 및 관리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여성부가 추진 중인 국가 성평등 지표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남녀권한척도 등 국제 성평등 지수 및 하위 지표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그리고 국제 성평등 지수

및 하위 지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 성평등 지표 센터(가칭) 등을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음

### 3. 정책효과

국제 성평등 지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기대되는 정책 효과를 다음과 같음.

- 첫째, 국가 성평등 정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함.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국제 성평등지수와 국가 성평등 정책의 연계를 통해 각 부처가 추진하는 성평등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고, 성인지예산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국가 성평등 정책 추진에서의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으로써 국가 성평등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둘째, 국가 성평등 수준의 개선이 가능함. 국가 성평등 정책과 국제 성평등 지수의 연계, 국제 성평등 지수 개선을 위한 중장기 목표 설정 및 관리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양성평등 실현이 가능하고, 성평등 분야의 국격을 제고할 수 있음